



군민과 함께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 기리며

강화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개최



현충탑 참배

강화군은 15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제79주년 광복절 경축행사'를 강화문예회관에서 개최했다.

경축식에 앞서 강화읍 견자산 현충탑 광장에서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 광복회원 및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참배의 시간을 가졌다.

광복절 경축 행사에는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한승희 강화군의회 부의장, 광복회원 및 보훈단체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축식은 애국지사 유족 소개, 기념사, 경축사,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식전 경축공연으로 개최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의 공연은 행사에 모인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경축사에서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은 “자유와 광복을 위해 헌신해 온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애국지사 유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간부공무원 중심으로 재원 확보에 총력 강화군, 2025년도 시비보조금 확보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2025년도 시비보조금 확보 추진계획 보고회

강화군이 12일 주요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2025년도 시비 보조금 확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도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내년도 인천시 본예산을 본격적으로 편성하는 시기에 맞

춰 총 389건, 773억 원의 시비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사전 검토 및 확보 전망과 향후 대응 전략 등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보고 사업으로는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 ▲장애인복지관 시설 개선, ▲신문 제4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군민 주거환경 개선과 노인·장애인복지 서비스 질 향상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반드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 윤 권한대행은 예산 확보에 차질 없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지속적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신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사업 중 군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예산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최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 주관부서와의 사전 공감대 형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자 대상 선거중립 철저 교육, 공명선거 지원

강화군, 강화군수 보궐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공직선거법교육

강화군이 5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오는 10월 16일 시행할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대비해 공직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서는 이양모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의 강의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업무추진 관련 제한 금지 ▲SNS 활용 관련 유의 사항 등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선거일 전 60일(8. 17.)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 및 각종 행사 개최 시 특정 행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할 것을 당부하며, 직무수행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를 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중점으로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명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깨끗하고 공정한
강화군수 보궐선거**”

강화군, 물놀이장 찾아, 안전 및 폭염 예방 홍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강화군이 지난 2일 제337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신정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일원에서 안전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캠페인에는 강화군 안전총괄과 직원과 안전 보안관, 자율방재단, 자원봉사센터 이외에도 선원면 직원과 이장단, 강화군 체육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물놀이 이용수칙 및 여름철 폭염 예방 등에 대해 홍보했다.

군에서는 캠페인 외에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시설물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온으로 인해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모자, 팔 토시 등의 착용과 충분한 수분 섭취, 나홀로 농작업 자제 등 여름철 폭염 대비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3년 60년만에 이루어낸 어장 확장, 24년 8월 1일 최종 조업 승인 강화군, 확장된 교동·창후 어장에서 첫 조업 시작!



강화군이 작년 11월 확장된 교동·창후 어장의 최종 조업 승인이 완료돼 새로운 어장에서 첫 조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어선 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장된 면적은 ▲교동 어장 6km² ▲창후 어장 2.2km²로 여의도 면적 3배 크기인 8.2km² 규모다.

2023년 60년 만에 어렵게 이루어 냈으나 관계 기관(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등)의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당장은 조업이 불가능해 어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에 군은 빠른 조업 시작을 위해 조건부 사항인 확장된 어장에서의 ▲어업지도선 배치, ▲조업한

계선 경계 부표 설치, ▲군부대 고속단정 부잔교 설치, ▲컨테이너, 펜스 등 경계시설 설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8월 1일 최종 조업 승인되었다.

이번 조업 승인으로 어민들은 한강 하구에서 젓새우, 꽃게 등의 조업이 가능해져 연간 약 40억 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되며, 어업규제 완화로 침체된 포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조업 어선 안전사고 대비 관계 기관 합동(강화군, 해병대 제2사단, 인천해경) 해상 상황 모의 훈련도 실시하는 등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첫 조업을 시작한 교동의 한 어민은 “넓어진 어장에서 마음 편하게 조업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좋다.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어업규제 해소로 우리 어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어업자원도 증강될 수 있도록 수산 종자와 종패 방류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청소년 교육여건 개선 간담회 열어



강화군의회, 교육 여건 개선 간담회 개최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화군 청년 정주의식 제고 정책 연구회」는 지난 6일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청소년 교육여

건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연구회 대표 의원인 오현식 의원, 강화교육지원청 김성환 교육장 및 관련 장학사

와 강화군청 소속 공무원, 교육 플랫폼 관련 담당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초·중·고교생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도입 ▲청소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회-군청-교육지원청간 추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오현식 의원은 “현재 강화는 청년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어 가고 있으며 도-농간 교육격차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을 비롯한 비교과 활동 지원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회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화군 청년 정주의식 제고 정책 연구회’는 올해 6월 발대식을 갖고, 지난 7월에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들의 지역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강화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안내

강화군이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기간을 오는 2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신·증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총 294호의 주택이다.

또한, 열람한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

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제출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9월 13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이러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데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6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KEYWORD NOW

시분초를 다투며 각 분야의 트렌드가 바뀌는 시대에 매달 떠오르는 키워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4년 부동산 트렌드의 3대 키워드는 '불안과 딜레마', '따로 또 같이', '시스템 리부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스템 리부팅'은 고금리, 고물가 등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의 단기적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건설·부동산 산업의 환경에 대응하는 방향성과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반영한 키워드입니다.

또한, 2024년 부동산 시장을 결정할 큰 변수로 금리가 꼽힙니다. 가계부채 부담이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공급의 앞뒤가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득, 시장수급, 심리 등도 주택 구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계부채 규모에 관계없이 경제성장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은 상호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의 ▶ 군청 재무과 ☎ 032-930-3284

열람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강화군수 보궐선거 각 후보 출마선언문

박용철 인천시의원 강화군수 보궐선거 출마선언문

- 박용철은**
- 14년간 한결같은 모습으로 강화군 구석구석 발로 뛰며 군민과 동고동락
 - 3선 군의원,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등 중단 없는 정치 경험 강점
 - 강화군정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하고, 통합의 리더십 갖춰
 - 강화군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박용철

전)인천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박용철 인천시의원입니다.

저의 오랜 정치적 멘토이자 동지였던 故 유천호 군수님이 별세하신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출마 선언에 앞서 그리운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저는 오늘 강화를 안정시키라는 군민의 목소리를, 군민 통합을 이루라는 염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강화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염원하는 군정 안정과 군민 통합, 강화군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3선의 강화군의원과 인천시의원으로 14년 동안 군민의 공복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박용철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강화군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민과 동고동락(同苦同樂) 해왔습니다.

그것이 제게 보내주신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답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일한 강화군 시의원으로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아 강화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했고,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강화군정에 대해, 우리 군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시의원 임기를 다하지 못해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더 큰 열매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이번 보궐선거는 군정을 안정시키고 강화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당선 즉시 군정을 매끄럽게 이끌 수 있는 중단 없는 정치 경험, 군민 누구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박용철, 14년 동안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강화군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 믿고 맡기셔도 좋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이번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강화군수의 잔여 임기는 1년 9개월입니다. 지키지 못할 거창한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 박용철은 7만 군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편 가르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강화군을 하나로 묶어 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누구보다 빠르게 강화를 안정시키겠습니다.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규제 개혁 등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확실하게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거짓과 편법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정도를 건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시의원 이력

-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인천시의회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 대표의원
- 제7·8대 강화군의회 전반기 부의장(前)

- 제6·7·8대 강화군의회 의원(前)
- 강화읍 출생
- 강화초등학교 67회 졸업
- 강화중학교 입학, 대건중학교 졸업
- 인천 송도고등학교 62회 졸업
- 경기대학교 경영학 학사

강화군수 보궐선거 각 후보 출마선언문

곽근태 평화에너지테크(주) 대표 강화군수 보궐선거 출마선언문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과 함께 〈교통문제 해결〉, 〈ESG 인증〉, 〈신속 공약〉 등 4대 공약 내걸어



곽근태
평화에너지테크(주) 대표

오는 10월 16일 실시되는 강화군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는 많은 후보가 출마 선언과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그중에서 기존에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는 곽근태 후보가 특징적인 공약을 가지고 (8월) 9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 오늘은 그 공약을 알아본다.

우선 곽근태 후보는 기존의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평화에너지테크(주)라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의 대표다. 그래서 그의 공약은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 공약에 대해 실현되었다는 걸 검증하는 것까지 약속하고 있다. 곽근태 예비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과 함께 〈교통문제 해결〉, 〈ESG 인증〉, 〈신속 공약〉 이렇게 모아 4대 공약이라고 정의했다.

그의 공약 중 가장 대표되는 건 아무래도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이다. 강화도 해안이 가진 세계 최고의 조수간만의 차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곽근태 예비후보는 강화군의 숙원 사업들은 필요성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 이런 경제성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력발전소는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일부 의견을 의식한 듯 곽근태 후보는 국가적으로 RE100 등 친환경 에너지가 절실한 상황에 강화군이 가진 천혜의 조건을 합해서 추진한다면,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 필요성을 충족하고, 강화군은 숙원 사업인 고속도로, 육지와 연결되는 다리 그리고 지하철을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조력발전소는 강화군의 발전을 이끌 스모킹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인구 7만의 기초단체가 아무런 경제성도 확보하지 않고 그냥 도로와 다리를 건설하겠다는 것과 자신의 공약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강조했다.

다음으로 그는 교통 문제를 군내 교통과 광역 교통으로 나누어 대응하겠다고 공약했다. 군내 교통은 다른 지자체에서 효과가 검증된 일명 천원 택시를 강화군에 도입하여 군내 교통 취약과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함께 제시된 광역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강화군에서 김포

▶ 곽근태 예비후보의 4대 공약 요약 ▶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조력발전소 건설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부합 - 강화군민의 조수간만 차를 활용 - 고속도로, 교량, 지하철 경제성 확보 - 철부 주도로 고속도로, 교량, 지하철 건설 - 인구유입, 재정 자립 등 강화군 발전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교통문제 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내 교통 해결을 위한 <천원택시> 도입 - 강화 - 김포공항역 간 직행 셔틀버스 운영 - 김포 골드라인 역 1개소 공유 - 강화군민 이통료 할인 - 장기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 검토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ESG 인증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군 행정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국제 인증 ESG 인증으로 투명성 증명 ESG: 조직 경영의 친환경성,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투명성 건립성을 향기하여 그 수준을 인증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신속공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업 물량장, 어선 피항시설 확충 - 문화, 예술, 체육 시설 확충 군내 공공시설, 학교협의 추진 등 활용 - 군, 읍사무소 민원행정 개선 사설미 행정 서비스를 제공 지역별 스마트타운 조성 운영

공항 지하철역까지 직행으로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고 했다. 이 셔틀버스는 중간에 김포골드라인 역 하나 정도 공유하고, 강화군민은 할인을 적용할 것도 함께 밝혔다.

곽근태 예비후보는 특이한 공약을 하고 있는데 바로 강화군 ESG 인증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조직 경영이 친환경적인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건전한지를 평가해 조직 경영의 지속 가능성 수준을 인증하는 국제적인 인증으로 강화군의 행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립한 후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약속이다. 곽근태 예비후보는 이 공약을 통해 자신은 자기 공약에 대한 검증 방법까지 제시한 유일한 후보라고 주장했다.

4대 공약 중 마지막 신속 공약은 강화군의 현안들의 집합 공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신속 공약들은 군수가 의지만 가지면 즉시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간 공정하지 못한 군행정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린 일들이라며, 자신이 군수가 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내용들을 대표하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그 내용을 보면, 강화군 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문화 예술 체육 공간을 확충하겠다는 것과, 어민을 위한 물량장과 어선 피항 시설 확충, 그리고 노약자가 군 혹은 읍사무소에서 민원을 위해 방문하면 교육받은 인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등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공약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령층의 스마트폰 활용에 도움을 주는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실도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 외에도 군민들의 소리를 선거운동 중 계속 청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군민들을 위해 공약을 더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는 곽근태 후보가 조력발전소와 ESG인증과 같은 특징적인 공약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 이 내용은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신 후보의 기사를 게재함을 알립니다.

곽근태

강화군수 예비 후보

1954년 9월 15일(69세) 경북 김천 출생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서경길 56-55
김천중학교, 줄
태백공업고등학교 전기과, 줄
김포대학 부동산 경영학과 재적

현) 국민의힘 인천시당 친환경 에너지 정책 위원장
평화에너지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강화군수 예비 후보(2022)
강화군 바둑협회장
강화군 자유총연맹 지회장
강화 갈비성 대표

강화군, 인구증대 관련 주민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인구정책 관련 간담회

강화군이 2일 인구정책 관련 다양한 분야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청년농업인을 비롯하여 지역 맘카페 운영자, 관내 초등학교 관계자 등 1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강화군의 인구감소 위기 현황 및 대응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강화군은 지난 2021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인구증대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 SOC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강화 로컬팜 빌리지 조성 ▲강화원도심 활성화 ▲강화 월간 홈커밍데이 등의 사업이 순항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은 인구정책을 통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감소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실제 군에 거주하는 정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강화군의 인구감소 원인 분석자료로 활용하고, 각종 인구정책 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민들도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군 인구정책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화군, 김장 채소 파종·정식 적기 중요성 강조



김장채소

강화군이 배추, 무, 순무 등 김장채소의 적기 파종과 정식(定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홍보에 나섰다.

강화의 대표 김장채소인 순무는 밭을 깊이 갈아서 흙을 잘게 부수어 뿌리가 잘 뻗어 내려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배 및 관리를 양호하게 하려면

파종기를 이용해 점파 후 밭에 빈 곳(결주)이 없도록 한 곳에 3~5립씩 파종한 후 2~3회 솟아주는 것이 좋다.

순무·무 파종 적기는 8월 중순~하순경이고 배추 정식 적기는 8월 하순~9월 상순경으로 가을 재배 시 너무 일찍 파종하면 바이러스 및 뿌리마름병 피해를 받을 수 있고 파종 시기가 늦어지면 제때 수확이 어려워진다. 특히, 이들 채소의 파종과 정식작업은 흐린 날 오후에 하면 뿌리 활착이 빨라 생육에 좋다.

배추 정식은 모가 너무 크면 초기 생육이 불량해지기 때문에 파종 후 15~20일 정도 길러 잎이 3~4개 정도 자랐을 때 본 밭에 옮겨 심는 것이 좋다. 심는 깊이는 모를 기를 때 심어졌던 깊이만큼 심어야 활착이 빠르고 초기 생육이 양호하다. 또한, 적절한 토양관리와 비료 공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품질 좋은 김장채소 재배를 위한 핵심 기술을 중점 보급하는 등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생육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품질 김장채소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염병에 대한 예방수칙 홍보에 나섰다.

길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재활용품 선별 봉사활동



길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재활용 선별 봉사활동

길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원정연)는 9일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해 재활용품 선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각 가정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배우고,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실시했으며, 회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재활용 선별 분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원정연 위원장은 “직접 체험하고 봉사해 보니 재활용의 중요성을 잘 알게 되었다”라며, “주민분들에게 분리수거에 방법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구 길상면장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과 재활용의 중요성에 관해 몸소 체험하시고 홍보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서도면 주민자치위원회, 삼계탕 나눔 봉사 활동 펼쳐



서도면 주민자치위원회 삼계탕 나눔

양도면 새마을부녀회, 삼계탕 나눔행사 개최



양도면 새마을부녀회 삼계탕 나눔

강화군 서도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윤희)는 지난 12일 무더운 여름을 맞아 어르신들께 삼계탕 나눔 봉사를 펼쳤다.

이번 봉사는 거동이 불편하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기력을 보충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90여 명에게 삼계탕을 전달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집집마다 방문해 삼계탕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도 살피며 여름철 안전수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윤희 위원장은 “폭염으로 지쳐있는 어르신들께서 든든한 보양

식인 삼계탕을 맛있게 드시고 올 여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포함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용수 서도면장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정성 가득 담긴 삼계탕을 준비해 주신 주민자치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서도면을 만들기 위해 위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도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애경)에서는 지난 9일 삼계탕 나눔 행사를 펼쳤다.

‘사랑의 삼계탕 나눔 DAY’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마련했다.

부녀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든 재료를 직접 손질하여 삼계탕과 함께 곁들일 수 있는 곁절이 등을 정성스레 만들어 양도면 각 경로당 회장, 사무장과 이장단 등 10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김애경 부녀회장은 “한여름 폭염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각

회장님들께서 든든한 보양식을 맛있게 드시고 올해 여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바쁜 시기에 함께 도와준 부녀회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순규 양도면장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가득 담아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부녀회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을 드시고 올해 여름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교동면, 광복절 맞이 경로당 태극기 일제 교체



교동면 경로당 태극기 교체

강화군 교동면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 20개소의 훼손된 태극기를 일제 점검하고 교체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과 더불어 나라사랑의 정신을 되새기고자 교동면 주민과 함께 비, 바람에 훼손되고 더럽혀진 태극기를 일괄 교체했다.

조현미 교동면장은 “이번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교동면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훼손된 태극기 등을 일괄 교체함으로써 평소, 태극기 관리의 중요성과 관리방법을 알리고 국기의 존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인천시, 수도권 중점 규제 등 역차별 난관 뚫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효과 체감...지방소멸 위기 앞장서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3개 사업 / 153억 5천만 원



인천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지방소멸대응기금' 맞춤형 지역 활성화 투자사업 추진으로 지방소멸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은 지난 1월 주민등록인구 300만 명을 돌파했고, 2024년 상반기에도 꾸준히 인구 증가세를 보이지만 2023년 기준 0.69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 및 높아지는 고령화 비율을 고려하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투자사업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 1조 원의(광역계정 2,500억, 기초계정 7,500억) 정부 출연금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인천시는 2024년 광역계정 4건 / 9억 5천만 원, 기초계정 9건 / 144억 원을 활용해 총 13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역계정의 경우 2024년부터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구성에 기금 중 40%를 출연(광역계정 총액 2,500억 중 1,000억 출연)하게 되어 이전보다 감액된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인천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설된 2022년 이후,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스마트 팜 조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 해안산책로 특화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행안부에서 발표한 2024년 1분기 인구감소 지역 생활 인구 산정 현황에서 전국 평균 보다 강화군, 옹진군은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구감소 관심 지역인 동구 역시 2023년에는 소폭이나마 인구가 증가해 앞으로 인구감소 추세에 반전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감소 지역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중점 규제로 인해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규제 특례 확대에 따라 옹진군에서 건의한 '화물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의 차량 운임 지원' 방안이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 지역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 포함돼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발전 방안을 반영한 정책사업과 생활 체감 효과가 높은 지역규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인구 유출 방지 및 생활 인구 유입 증대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강화농협, 농협내 최고 권위의 상 총화상 수상



강화농협 이한훈 조합장, 농협 최고의 영예 <총화상> 수상



강화농협 이한훈 조합장, 농협 최고의 영예 <총화상> 수상

강화농협(조합장 이한훈)은 지난 13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창립63주년 농민신문사 창간60주년」 기념행사에서 농협최고 권위의 상인 「총화상」을 수상했다. 총화상은 전국 농·축협 1,111개 농협을 대상으로 16개 농협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임·직원 간 인화단결, 경제,신용,교육지원사업등 전 분야를 종합 평가해 모범이 되는 농협에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상이다.

이날 강화농협(조합장 이한훈)은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누면서 이런 결과가 있기 까지는 강화농협을 믿고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신 강화농협 조합원님과 고객의 노고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수

상의 영광을 모두에게 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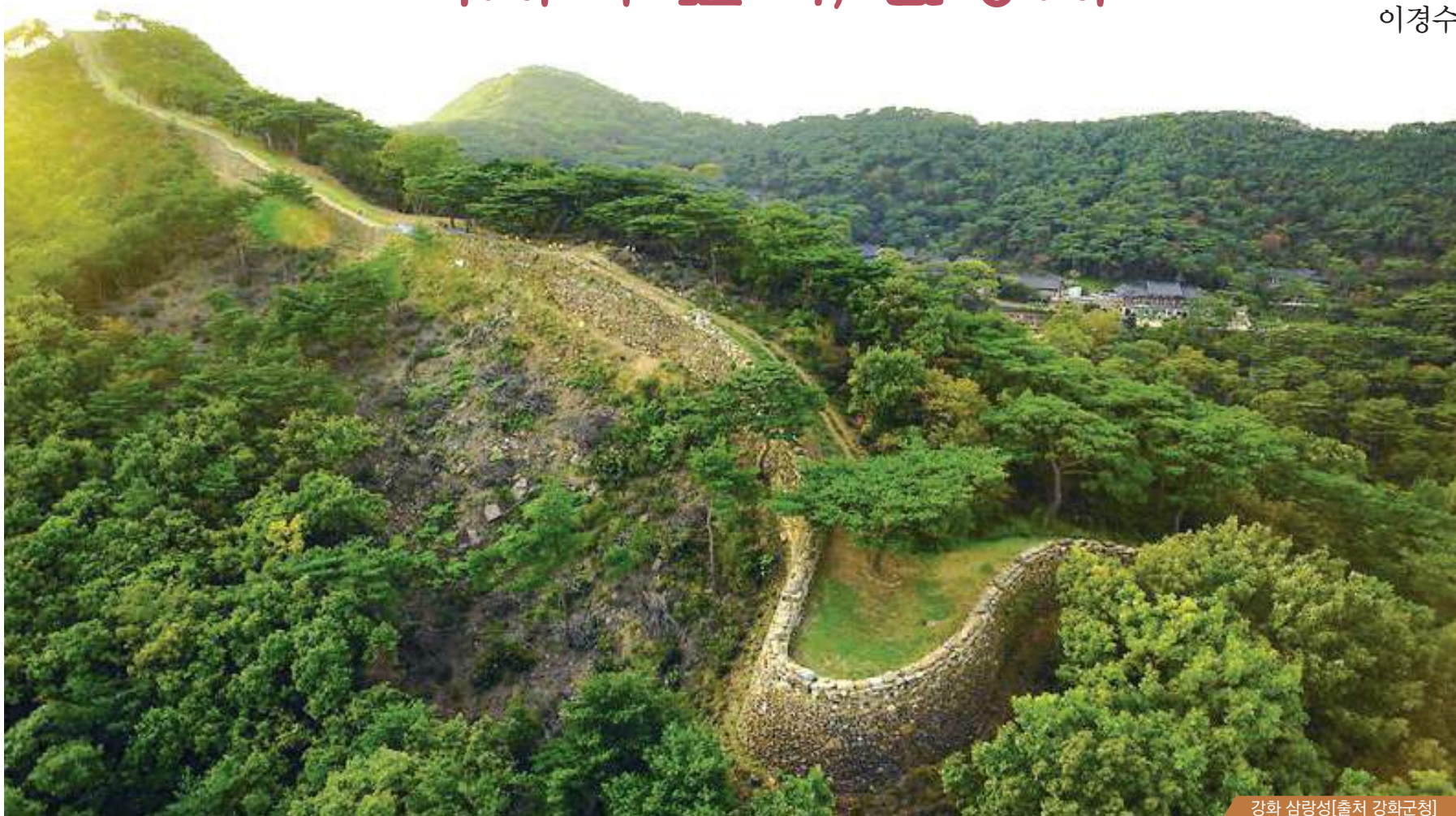
“강화읍 A조합원은 이한훈조합장 재임기간에 2회에 걸친 농협최고권위의 상 수상을 받는 것에 대해 강화농협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임직원께 감사하다는 말과 앞으로도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강화농협이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한편, 이한훈 조합장은 재임기간 중 2016년 총화상 수상에 이어 다시 한번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8년만에 다시 총화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고, 지난해에는 종합업적평가 우수상을 받기도 하였다. - 최백하기자

기고

역사의 숲속, 전등사

이경수



강화 삼랑성[출처 강화군청]

옥등을 전하여

전등사, 한자로 傳燈寺라고 씁니다. 등(燈)을 전(傳)한 절이라는 뜻이 이름에 담겼네요. 전등사가 자리잡은 산은 정족산입니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는 정족산을 전등산으로도 불렀습니다. 전등사가 있는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 이름은 진종사(眞宗寺)였대요. 고려 충렬왕 때 정화공주(貞和公主)가 옥등(玉燈)과 중국서 들어온 대장경 인쇄본을 시주해서, 절 이름을 전등사로 바꿨다고 합니다. ‘아, 정화공주가 옥등을 전해줘서 전등사가 되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대장경도 등(燈)입니다. 법등(法燈)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어두움을 밝히는 게 옥등이라면, 인간의 어두움을 밝히는 게 법등이래요. 대장경을 시주해서 전등사라고 이름하였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정말 전등사에 옥등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1740년(영조 16)에 강화유수 오원이 산살구꽃 만발한 전등사에 갔습니다. 그가 지은 글에서 한 꼭지 옮깁니다. “관법당(觀法堂)에서 아침을 먹었다. 불전(佛殿)에 오래된 옥등이 있었는데, 승려가 말하기를, 정화공주가 보시한 것이라고 하였다.” 조선 후기 영조 임금 때에도 전등사에 옥등이 있던 겁니다.

정화공주!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녀가 누구인지 보기 전에 ‘공주’의 의미부터 생각해봅시다. 공주는 왕의 딸, 왕자는 왕의 아

들! 똑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공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쓰임이 달랐고, 특정한 원칙도 없었습니다. 신라에서 왕의 후궁이나 귀족 부인을 공주라고 했습니다. 고려에서는 왕의 딸이나 후궁을 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냥 어정쩡하게 쓰였습니다.

정화공주의 ‘공주’는 일종의 후궁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부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후궁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누구의 후궁? 충렬왕의 후궁입니다. 원래는 정식 부인이었는데 나중에 후궁으로 격이 떨어졌습니다.

흔히 ‘충렬왕의 원비 정화공주’라고 소개하는데, 이렇게 쓰면 이해가 잘 안되죠. 원비(元妃)란 임금의 정식 부인을 말합니다. 공주는 후궁이라고 했지요. 충렬왕의 부인 후궁? 이상합니다. ‘충렬왕의 원비였던 정화공주’라고 해야 자연스럽고 이해도 잘될 겁니다.

원비가 후궁이 된 사연은 이러합니다.

정화공주(?~1319)는 충렬왕이 즉위하기 전에 그와 결혼했습니다. 1남 2녀를 두었어요. 원종이 승하하고 충렬왕이 즉위하면서 자연스럽게 왕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즉위하기 전 충렬왕이 원나라(몽골)에서 또 장가들었기 때문입니다. 충렬왕의 두 번째 색시는 원 세조 쿠빌라이의 딸인 제국대장공주입니다.

즉위한 충렬왕이 원비를 정화공주로 내렸습니다. ‘세컨드’인 제국대장공주를 정비(正妃)로 삼았습니다. 본부인이었던 정화공주는 이제 제국대장공주 앞에 무릎을 꿇는 아랫사람이 되었습

니다. 고려와 원의 관계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충렬왕은 아팠을 것입니다. 정화공주는 더 아팠겠지요.

전등사를 찾은 이유

1276년(충렬왕 2), 정화공주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빠집니다. 무당을 시켜 제국대장공주를 저주했다는 모함을 받아서 갇히는 신세가 된 겁니다.

정화공주를 구한 건 남편 충렬왕이 아니라, 유경이라는 신하였습니다. 유경이 제국대장공주를 설득해서 정화공주를 석방하게 했습니다. 유경이 어떤 말을 했는지 《고려사절요》에 나옵니다. 다듬어서 옮깁니다.

“공주께서 오셔서 만백성이 안도하고 있습니다. 공주를 보내주신 황제의 은덕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정화공주가 만약 사사로운 감정으로 공주를 저주했다면, 저주를 들은 귀신이 오히려 정화공주를 벌할 것입니다. 은덕을 배반한 화가 반드시 정화공주에게 미칠 것입니다.” 하였다. 유경이 눈물을 흘리며 매우 간절하게 말하니, 좌우 사람 중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공주도 감동하고 깨달아 모두 놓아 주었다.

굴곡진 인생, 시련에 시련이 더합니다. 정화공주, 뺨 뚫린 가슴에 스미는 바람으로 한여름에도 추웠을 것 같습니다. 도시 의지할 곳이 없어 개성에서 여기 전등사를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을날 전등사



삼랑성 동문에서 본 양현수 승전비각

고종의 아들이 원종이고, 원종의 아들이 충렬 왕입니다. 충렬왕은 1236년(고종 23)에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고려가 몽골과 전쟁하던 시기입니다. 고려의 도읍이 개성이 아니라 강화였던 시절입니다. 충렬왕이 태어난 곳이 바로 여기 강화라는 얘기입니다.

정화궁주가 태어난 해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충렬왕과 나이가 엇비슷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화궁주 역시 강화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전등사가 있는 강화가 정화궁주의 고향인 것입니다. 고향 품에 안긴 정화궁주,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해동비창불우

전등사의 본디 이름이 진종사라 했습니다. 그러면 진종사가 창건된 해는 언제일까요? 《전등본말사지》에 따르면, 381년(소수림왕 11)입니다. 아도화상이 세웠다고 합니다.

삼국시대인 381년!

전국 그 많은 사찰 가운데 서기 381년 이전에 창건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존하는 사찰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 전등사인 셈입니다. 그래서 '해동비창불우'(海東鼻創佛宇)로 불립니다.

비(鼻)자는 이비인후과(耳鼻咽喉科)나 비염(鼻炎)처럼 '코'라는 뜻으로 흔히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처음', '시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동] 처음 창건된 [비창] 절집 [불우] 이 '해동비창불우'인 것입니다. '천년 고찰'도 엄청난게 느껴지는데, 전등사는 천년에 600여 년을 더해야 합니다.

역사의 향

절에 가면 향내를 맡게 됩니다. 전등사에는 향내와 함께 역사의 향이 났습니다. 경내 너른 숲이 그대로 역사의 현장입니다.

사찰을 빙 두른 정족산성(삼랑성)은 단군의 아들 셋이 쌓았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설도 전설 나름, 삼랑성 이야기는 《고려사》와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실렸습니다. 무게감이 다릅니다.

고려 대몽항쟁기에는 전등사 경내에 가궤(假關)이 들어섭니다. 몽골에 대한 항쟁을 지속하면서 고려 왕조를 지켜내려는 염원을 담아 세운 상징적인 궁궤가 가궤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사고(史庫)가 들어옵니다. 정족산사고입니다. 조선 후기 문신인 윤기(1741~1826)가 정족산사고에 온 감회를 시로 읊었습니다.

진종일 일행과 숲을 함께 헤매다가
전등사가 나타나니 힘든 줄 모르겠네
삼랑성 높은 성벽 옛 모습 남아 있고
정족산 높은 봉(峯)이 멀리 만(灣)을 바라보네
이곳의 경치는 조선에서 으뜸이니
예로부터 사고는 명산에 있었다네
지난날 유람했던 태백산 그곳(태백산사고)도
두 점으로 방어하는 이곳만은 못하였네

화약 냄새 역시 역사의 향이 되었습니다. 병인양요(1866)입니다. 양현수가 이끄는 조선군이 삼랑성에 의지해 프랑수군을 격파했습니다. 전등사를 구했고 강화를 구했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1873년(고종 10)에 강화 주민들이 '양현수 승전비'를 세웠습니다. 비문 말미에 이렇게 새겼어요. "오늘날 강도 백성들이 부모와 처자 형제가 있어, 서로 보양하고 서로 기르게 된 것은 오직 공의 은혜이니 영원토록 사모하노라." 양현수 승전비가 원래는 대조루 입구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지금 자리로 옮겼습니다. 정족산성 동문 바로 안쪽입니다.

1908년, 전등사에서 다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일본군입니다. 전등사에 집결한 강화의 항일의병이 일본군을 격퇴합니다. 이 시기 강화 항일운동의 거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등사였습니다.

소를 몰고 온 사람들

병인양요 정족산성 전투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기적 같은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야 양현수 장군의 지휘와 작전이 훌륭했고, 따르는 병사들이 잘 싸워준 덕분이지요. 여기에 더해서 지역민들의 성원과 정성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양현수가 군사들을 이끌고 염하를 건너 전등사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성껏 먹을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귀한 소를 보낸 이도 여럿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강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병사들 든든히 먹고 기운 내라고 자발적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강화 주민들의 성원이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양현수는 백성들이 보낸 소 가운데 검은 황소를 잡아 희생으로 올리고 산신제를 지냈습니다. 전등사 스님들은 밤새워 승리를 염원하는 기도를 올렸겠지요.

소를 보낸 이 가운데 흥진섭도 있습니다. 흥진섭은 그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내 장사 지낸 지 열흘도 안 됐고 아이들마저 어린데/적병은 며칠 지나지 않아 올라올 것이니 길목마다 어렵구나/서생에게 어찌 적을 평정할 계획이 있으랴만/보잘것없는 것 드렸어도 좋은 얼굴로 맞이하네."

불과 며칠 전 아내 잃은 슬픔에, 정신이 없을 텐데, '재산목록 1호'인 소를 몰고 와 양현수에게 넘기는 흥진섭이라는 이의 마음, 그런 마음이 모여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정화궁주를 중심으로 전등사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단순한 절이 아닙니다. 전등사는 역사의 보고(寶庫)입니다.

어떠세요? 날은 덥지만, 한번 가보시지 않을까요?

절은 절할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기고 “개나 소나 다 강화군수 하겠다는데”…출마자 20명 넘을듯



이 두

언론인
(전 조선일보 인천취재본부장)

강화군수는 때로는 목숨과도 바꿀만큼 참으로 탐나고 매력적인 자리다. 매년 6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800여명의 공무원과 산하 기관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한다. 다른 기관의 견제와 관리 감독을 형식적으로 받으며 자신만의 강력한 의지와 권한으로 행정을 집행한다. 군의회와 지역 언론이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만 군수의 권한을 옥죄일만큼 강력하지 못하다. 오히려 군수가 군정을 펼치는데 앞장서는 친위대 노릇을 할때도 있다. 실로 강화군수는 ‘강화군의 대통령’이나 다름없다. 섬의 특성인 배타성과 폐쇄성이 더해져 군정의 실상이 제대로 까발려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자신만의 왕국(?)이 가능하며 실제로 그렇게 해오기도 했다. 인천시장은 물론 대통령이 남부럽지 않기도하다. 이 같은 강화군수의 자리가 지난 3월부터 비어있다. 전임 군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지금 20여명이 이 무더위에 강화를 사랑하는 자신만의 뜨거운 마음을 알아달라며 강화군수 자리를 노리고 있다.

강화군수를 새로 뽑는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고 당선자가 결정된다. 지난 8월 4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돼 출마자들이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중이다. 등록 첫날 9

명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이번 선거에는 무려 20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난립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 사무소와 사무소 외벽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상당수 출마자들은 이미 알게모르게 출마 준비를 해왔으며 당선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공식적인 등록과 출마 선언은 물론이고 전직 공무원, 단체 기관장, 언론인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지역 내 인사들에게 지지를 호소 중이다. 조직 강화 및 지지 세력 결집을 비롯해 사무실 개소, 출판회 개최 등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강화를 발전시키겠다는 공약도 조금씩 쏟아지고 있다.

출마 후보자들이 많다보니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으며 이름과 얼굴 맞추기도 쉽지 않다. 이력들은 실로 다양하다. “다시 한번 뽑아주면 진짜 잘할 수 있다”는 전직 강화군수는 물론이고 전직 부군수, 전직 국장, 전직 군수의 아들, 현 시의원과 전 시의원, 장례식장 대표, 강화의 노래를 만들었다는 국회의원 보좌관, 인삼조합장, 교수, 어학원장, 이름도 아리송한 지역단체 활동가 등 그야말로 가지각색이다. 급기야 전직 인천시장까지 강화군수에 출마하겠다고 해 지역 여론 주도층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 나이에 욕심을 더 부리냐. 추하다. 노욕 부리지 말고 은퇴하라”는 부정적인 반응에서부터 “인천시장을 지내고 중앙 무대에서도 크게 활동한 거물이니 강화에 도움

이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전직 군수의 아들 출마를 놓고도 지역 내 여론이 뜨겁다. “강화에 적지않은 공과를 남긴 부친의 얼굴을 봐서라도 출마하면 안된다”는 민심과 “아들이 하겠다는 데 말할 수 있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강화도가 아무래도 보수 텃밭이다 보니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절대 다수를 이룬다.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출마하겠다는 인사까지도 나온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이름이 15명 넘게 거론된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은 일단 서류심사를 거쳐 1차 후보를 추려낸 뒤 여론조사와 면접 등을 거쳐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후보에 맞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2명만이 이름이 오르내린다.

후보자들이 난립하는 현실에 강화주민들의 시선은 매우 곱지않다. 출마는 자유라지만 ‘그 나물에 그밥’이라는 낱선 반응이다. 호랑이 없는 굴에 하룻강아지들이 자신들이 새로운 맹주가 되어보겠다는 꼴같지않은 형국에 혀를 차기도 한다.

이번 선거의 정식후보자 등록은 9월 26일~27일 진행된다. 선거 운동은 10월 3일부터 선거 전날인 10월 15일 자정까지 할 수 있다. 사전투표일은 10월 11일과 12일이다. 전임 군수의 잔여 임기만 채우는 보궐선거이기에 당선자는 2026년 6월까지 군수직을 수행한다.

강화군노인복지관, ‘사랑과 행복을 빚어요!’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 진행



강화군노인복지관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 진행

강화군노인복지관(관장 윤심)은 63개소 경로당 500여 명을 대상으로 7월 한 달간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직접 도자기를 빚고 칠하며 나만의 도자기를 완성하는 속에서 성취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노인복지관은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을 비롯하여 단기특강·기획행사 등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며, 활기차고 건강한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심 관장은 “경로당을 여가활동 공간으로서 기능을 확대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참여와 여가선용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행복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기고

선거 출마가 직업인가? or 군군신신 부부자자



신득상
진) 강화군의회 의장

지난 4년간의 강화군 의회 의장 생활을 마치고 오롯이 나의 건강을 살피며 그저 한가롭게 눈앞에 펼쳐진 자연의 변화를 즐기며 호연지기의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봄 갑작스런 유천호 강화군수의 별세 소식은 강화군청과 떨어져 지내고 있던 나조차 마음을 바쁘게 했다. 정치인으로서의 나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던 것이었다.

그동안의 정치 인생이 길어서인지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를 생각하는 이들이 나에게 자문을 구하곤 한다. 그럴 때마다 참 난감할 때가 많았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해주고 싶었지만, 차마 당사자 앞에서 못했던 그 말을 이 지면을 빌려 하고자 한다.

20여명이 군수 후보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강화군 발전에 대한 그들의 열망이라고 인정해 주고 싶다. 법이 정한 자격만 있다면 피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군 선거에는 특이점이 있다. 매년 선거에 출마만 하는 인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본인들이 나섰던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도 낙선이 되어도 매년 다른 선거에 출마한다. 또 다른 욕심을 내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군의원이 되고자 했다가, 시의원이 되고자 했다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다가, 이번에는 강화군수가 되고자 선거마다 등장하는 그 선거꾼들이 또 들쭉이고 있다. 군민이 맡겨준 소임이 있다면 그 소임에 충실하고, 낙선의 아픔이 있었다면 그 자리조차 군민이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를 잘 살펴 노력하고 다음을 노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선거 출마가 직업인가?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진심으로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인가? 정치인으로서 그저 어떤 자리 하나 차지하면 그만인가? 아니면 또 다른 욕심으로 지금 자리는 성에 안차는 것인가?

본인의 역량과 강화군에 대한 본인의 비전이 군의원이 맞는지 시의원이 맞는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 어떤 자리라도 상관없다면 본인의 그릇과 역량에 맞는 자리를 향해 유권자

의 한 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이 있다. 공자의 이 말은 말은바 본인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라는 뜻이다. 본인의 역량에 맞는 각자의 자리에서 강화군에 대한 본인이 가진 비전이 어떤 직책으로 가능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모두들 자기 그릇에 맞는 군민이 허락한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

2024년 여름이 시작되며 요란한 빗소리와 바람으로 강화군 이곳저곳에 상처가 많은 듯하다. 이곳저곳 사고 소식이 들릴 때마다 왜 진작 이런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지 못했을까 하는 탄식뿐이다. 기존의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상처를 고스란히 지금 우리 군민들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구축한 시스템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재난이었던지는 한번 따져봐야 한다. 수십 년간 강화군민들의 발이었던 3000번 버스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기존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바랄 것인가.

앞으로 100년 강화군의 미래를 살펴볼 때 강화군의 새로운 미래에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다양한 문화체험도 실시 및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 강화군,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성료



청소년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강화군이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2024년 강화군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된 강화군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사업은 강화군 청소년 특화사업으로 전체 연수비의 90%를 강화군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저소득층 참가자에게는 연수비 전액을 지원한다.

이번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어학연수에 참여한 60명의 학생들은 3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난 10일 귀국했다.

현지에서 학생들은 서구권 원어민 교사들과 함께하는 ESL 수업과 1:4 스피킹 집중수업, CIP 영어 참여수업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일주일에 두 번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다채로운 문화체험 활동도 실시했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싱가포르 유니버설 스튜디오, 싱가포르 동물원, 마리나 베이, 말레이시아 레고랜드, 데사루 워터파크 등 외부 액티비티 활동들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

한편, 군에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95%의 학생들이 이번 어학연수로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연수에 참가한 한 학생은 "원어민 선생님들과 수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어 리스닝이 되었으며 군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어 뜻깊은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우수한 프로그램 구성과 연수단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 어학연수가 성공적으로 종료됐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은 점차적으로 연수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최백하 기자

2024 'ganghwa_ro'청년, 강화로 걷다.' 개최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청년의 날' 행사 마련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센터장 윤정혁)는 오는 24일 중앙시장 2층에 위치한 청년공간 유유기지 강화에서 청년과 지역 사회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내달 21일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1부 청년선언문 낭독, 유공자 포상 ▲2부 스윙댄스 공연, 토크콘서트(초청강사 박재연) ▲3부 테마여행/아이디어경진대회 시상·발표, 청년 교류 시간 등으로 14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된다.

이 외에도 인생 4컷 촬영,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돼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 송출로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청년은 온라인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윤정혁 센터장은 "청년의 날 행사를 통해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며, 지역 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니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청년의 날”

● 실시간 유튜브 송출

행사일시

• 2024. 8. 24 (토) 14:00~ 17:00

행사장소

• 유유기지 강화 (중앙시장B동 2층)

참여대상

• 청년·청소년, MOU체결 대학생, 졸업생 등

스윙댄스 '날다&로빈' 공연

간식제공
경품추첨
인생4컷 촬영 지원 등

※**참여혜택**

<토크콘서트 개최>

박재연 소장
現 리플러스민간연구소
現 대화훈련, 대화상담, 갈등중재
방송출연
요즘 육아 금쪽같은내새끼,
고딩엄빠, 어쩌다어른 등 다수



강화군 창업 · 일자리센터
문의 032-934-3088, 3098



강화군, '게임 OST 오케스트라 공연' 성황리 마무리



게임 ost 오케스트라 공연

강화군이 지난 9일 강화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 「2024년 게임 OST 오케스트라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게임 OST를 오케스트라와 성악이라는 색다른 장르로 풀어낸 청소년을 위한 공연으로, 45인조 오케스트라와 '팬텀싱어 4'에서 최종 3위의 성적을 거둔 성악가 이승민 등이 출연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날 방문한 관람객은 총 700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자녀와 부모님이 함께 공연장을 찾은 모습이 많이 포착돼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

관람한 한 학생은 “제가 좋아하는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부모님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좋았고, 부모님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다”며

즐거워했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청소년은 강화군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여름방학의 끝자락에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이 공연이 가족 내 소통과 공감대 형성의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행복한 강화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화군, 코로나19 재유행, 예방수칙 준수 당부

강화군이 최근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수칙 홍보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재유행 원인이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하계휴가로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는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기 쉬운 환경 조성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군은,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의 예방수칙을 적극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침예절 실천(코와 입을 가리고 하기, 기침 후 올바른 손씻기 등)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등) ▲실내 자주 환기(2시간마다 10분씩, 공공시설은 출입문과 창문 동시에 열기 등) 등이다.

특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있을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을 것을 권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여름철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위생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초까지 코로나19 감염자는 1만 400여 명에 이른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 30미터 이내까지 금연 구역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8월 17일부터 금연 구역 확대

인천광역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30미터 이내로 확대된다.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흡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금연 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해 안내 포스터와 스

티커를 제작하여 관련 시설 및 인근 지역에 배포하고, 시와 군·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군·구 합동점검과 금연 지도원을 통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금연 구역 확대가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받고, 깨끗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서정진기자



2024 강화군수 보궐선거

더 나은 강화를 위하여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약속합니다!



사전투표 10월 11일(금) ~ 12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본 투표 10월 16일(수) 오전 6시 ~ 오후 8시

* 10. 14.(월)까지 투·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개표 (투표종료 후 즉시)

* 이 광고는 공익과 행복한 강화를 위해 <강화투데이>에서 무료 제작하였음을 밝힙니다.

today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